

# 올 영암 F1 328억 추가 투입한다

전남도, 중계권료 160억 포함 추경예산 확정

시민단체 저지활동 돌입…의회승인 논란 예상

올해 10월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전남도가 32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30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대회를 치르기 위해 32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초 전남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액은 지난해에 견줘 10% 상승한 중계권료와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들인 PF 대출금 1980억 원에 대한 이자(4개월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남도가 대회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전남도의 F1 대회 주경안은 ▲대회 운영비 78억원 ▲중계권료 160억원 ▲PF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40억 ▲개최권료에 따른 세금 50억 등에 배정됐다. 여기에는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 여유공간에 전남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비용(국·도비 각각 1억원) 2억원도 포함됐다.

대회운영비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때 삼감했던 대회 운영을 위한 출연금(100억) 중 78억원을 다시 편성했고 중계권료의 경우 인하 협상이 전남도 뜻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감안, 지난해(147억원)보다 10% 을 린 채 편성했다.

PF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SK가 '시공사 주식 매도권'을 행사해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 내 모든 지분과 채무를 전남도에 넘기겠다고 통보한 만큼 SK가 보유한 채무보증 액부담액(448억) 등에 따른 금융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향후 협상을 진행하면서 분담액을 조정하겠다는 게 전남도 복안이다.

경주장 건설을 위해 약속했던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대회 수익 구조가 불안한 만큼 대회 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줄곧 진행된 중계권료 협상이 끝내 진전된 결과를 보지 못한데 따른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PF 채무보증액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떠안는 예산 편성이어서 지역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F1관련 의혹과 실제에 대한 범도민 진상규명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31일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 편성저지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F1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해 편성하는 등을 대회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정신대 문제 원전 해결을 촉구했다.

## “근로정신대 문제 하루빨리 해결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3) 할머니는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 23일 예정된 일본 사회보험청의 후생연금 재심사와 관련,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 대신

에게 발송하는 서신을 공개하고 근로정신대 문제 원전 해결을 촉구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공개 서신을 통해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 걸 보고 누구보다 먼저 일본을 돋자고 나섰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며 “근로정신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불복, 재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며 다음달 28일 재심사 청구 공개심리가 예정돼 있다. /최현기자 cki@

## 금호석화朴회장 내달초 소환

금호석유화학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다음달 3일 소환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박찬구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찰은 금호석화가 계열사 또는 협력사와 거래하면서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최소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짚고 금호석화의 거래처 임원과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 박람회 앞둔 여수 땅값 6.2% 상승

전국 개별공시지가 2.57%↑

광주 2.07% 전남 3% 상승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31일 공시했다.

올해 광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07%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2.57% 그리고 광주시 평균 2.87%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구 2.48%, 북구 1.98%, 광산구 1.77% 순이었다. 동구는 0.8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m당 지가 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가 평균 2.70%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0.66% 상승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동구 종장로2가 16번지(상업지구) 광주우체국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지가를 이어갔으며, 전년대비 m당 11만원이 상승한 988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광산구 사호동에 있는 임야로 지난해와 같이

m당 499원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3%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2.32%)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산업단지와 여수세계박람회 및 개발제한구역 혜택 등으로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지역 땅값 상승폭이 커 전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둔 여수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6.2%가 올라 가장 상승폭이 높았고, 광양시도 태인동 국가산단 및 신길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기대감으로 5.3% 상승했다. 담양군은 개발제한구역 혜택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년도보다 3.8% 상승했다.

전남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여수시 종양동 581번지 부지로 1m당 428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는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산 215번지로 1m당 116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충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철거 위기 수피아여고 소강당 광주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 중요 근대건축물 양식 인정

자치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근대건축물 광주 수피아여고 소강당 <사진>이 광주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30일 “최근 지난 1928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피아여고 소강당을 129번째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했다. 오는 6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양립동 242번지에 있는 수피아여고 소강당은 광주 근대 사학의 효시인 수피아여고가 1928년 지정하고 인가를 위해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어 광주에 남아있는 철학시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붉은 벽돌을 재료로 해 독특한 박공지붕, 왕대공 트러스 등은 당시의 건축 양식과 기술을 엿볼 수 있어 중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그러나 지난해 수피아여고 죽이 교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 광주시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해해 보존을 당부하자 학교 측이 당분간 소강당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수피아여고 소강당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소유주가 원형 변경이나 리

모델링 등에 나서기 전 광주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지역 내 그나마 잔존해 있는 근대건축물과 60·70년대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보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뉴스 브리핑

### 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광주시는 30일 “오는 6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통장에서 다른 자산과 섞여 압류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

/윤현석기자 chadol@

### 전남도 하반기부터 유동정원제 시행

전남도가 업무량이 적은 부서 직원을 긴급 현안부서에 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하반기부터 유동정원제 시행을 고려해 부서별 업무량 조사 결과를 분석해 업무량이나 가능성이 적은 부서의 6급 이하 직원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정해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즉시 배정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유동정원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변

경해 본청에서 우선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산하 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개인·부서별 사무량 조사 결과를 분석해 업무량이나 가능성이 적은 부서의 6급 이하 직원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정해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즉시 배정할 계획이다. /김자율기자 dok2000@

##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차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 오천경매연구소 H. 011-605-5000

##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학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sup>2</sup>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 공무원 특별자금

주조회 기획서비스 • 100% 저축성장기금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1%~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

##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 금액 - 3백만 - 4천만 (주기대출 가능)
-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 가능, 본인선택)
-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파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d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540호)

##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진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

| 식품포장(LLD생산 및 최신 합지 및 인쇄 기공시설 완비) |

| 야채포장(인쇄 및 가공) | 치어백, 톤순가공 |

| 우산자동포장비닐(국내우산기계의 80%이상 사용중) |

※ 각종 포장비닐 상담환영

④ 進源產業株式會社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